

보도	2026.10.15.(목) 조건	배포	2026.10.14.(수)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책임자	팀 장	안태훈 (02-3145-7587)
		담당자	조사역	김민기 (02-3145-7584)
	연금감독실 연금혁신팀	책임자	팀 장	석진우 (02-3145-5186)
		담당자	선 임	오지은 (02-3145-5187)

〈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 〉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 계좌 개설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좌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개선 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계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련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

*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고 '비관리계좌'에 비해 높은 매매수수료를 납부

※ 거래방법이 MTS 등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①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 및 관리계좌 여부(관리/비관리)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

② 투자자가 신규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을 통해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

▶▶▶ 동 개선방안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 배경

-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 ETF 등의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매매거래 중개시 각 사별로 정해진 매매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과
- 다만, 증권사의 매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영업점 개설 계좌를 통한 매매거래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등 현황을 파악하여 투자자 보호 관련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2 증권사 매매수수료 현황

- **(현황)**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기준 등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

* 국내증권사(37개사) 중 (위탁매매계좌) 9개사, (연금저축펀드계좌) 7개사로 중복 증권사 고려시 총 10개사

** 거래방법이 MTS 등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매매수수료를 차등 부과

- 이는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관리계좌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기인

[사례]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

- ☑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되어 거래방법이 온라인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온라인 개설 계좌(0.010%) 대비 10배 이상의 높은 매매수수료(0.136%)를 부담

계좌 개설방법 \ 거래방법	오프라인(직원 등)	온라인(MTS-HTS 등)
영업점(관리계좌 지정)	0.486%	0.136%
온라인(관리계좌 미지정)	0.486%	0.010%

- **(미흡 사항)**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관리계좌 지정에 따른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증권사의 안내가 부족*하고

* (사례) ①약관 등에서 매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안내 없이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 ②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구체적인 서비스 차이(이용 가능 서비스 목록 등) 비교·안내 미흡

-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되어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

3 개선 방안

- **(안내 강화)**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비교·안내하는 절차 마련

*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매매수수료 차이의 경우 계좌 개설시 제공되는 약관 또는 거래설명서 등에 내용을 명시하여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선택권 확대)**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

*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 개설시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발생 가능

-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의 SMS 문자 발송, MTS 등 거래시스템에 팝업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가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①관리계좌 보유 사실 및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②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③비관리계좌로 자산 이관시 기존 서비스 제한 등 유의사항 등을 포함

☞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대 효과)**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관련 약관 개정,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27.1분기 내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증권사별 일정은 상이)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가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어 주식, ETF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비관리계좌 대비 높은 매매수수료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계좌의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꼭 확인
하시고, 관리계좌인 경우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이제 계좌 개설시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계좌 지정함



☐ 관리계좌 지정 안함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계좌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나의 투자방식에 맞는 계좌 유형을
선택하여 개설하세요

- 관리계좌: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상담·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나, 비관리계좌 대비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
- 비관리계좌: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담·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는 다소 제한되나, 관리계좌 대비 낮은 매매수수료를 부과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께]

STEP 1. 관리계좌, 비관리계좌의 안내·설명을 반드시 확인하기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련 직원의 설명·안내 등을 통해 계좌 유형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STEP 2. 나에게 맞는 계좌 유형 선택하기



직원의 설명·안내 등을 통해 확인한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특징을 나의 투자방식과 함께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계좌를 개설하세요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 분들께]

STEP 1. 나의 계좌 상태 확인하기

현재 내가 보유한 계좌가 관리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고 나의 계좌가 관리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 등을 확인하세요

* 예시) 증권사 고객센터, MTS 등 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증권사별로 확인 방법은 차이 존재)

STEP 2. 필요시 '비관리계좌' 개설하기

나의 투자방식을 고려하여 관리계좌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저렴한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비관리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기존 금융상품을 비관리계좌로 옮겨주세요*

*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의 경우 SMS 등을 통해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입출고 바로가기 링크(URL)를 안내할 예정이며 입출고의 경우 통상 1~2영업일 소요될 수 있음



! 비관리계좌 개설 전 꼭 알아두세요 <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이관하면 **매매수수료는 저렴해지지만**, 증권사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